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6호

2026년 2월 1일(가해)

| | | | | |
|----------|-----------------------------------------------------------------------------------------|----------------------------------------------------------------------|----|----------------------------------------------------------------------------------------------------|
| 미사 안내 | 평일 |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 주일 |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
| 연령회 |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 | |



오늘의 미사

연중 제 4주일

| | |
|------------------------------------------------|------------------------------------------------------------|
| ▶ 1독서 : 스바니아 예언서 2,3; 3,12-13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 ▶ 화답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 ▶ 2독서 : 코린토 1서 1,26-31 | ▶ 복음 : 마태 5,1-12ㄴ |

성가 ▶ 입 당: 38 ▶ 봉헌: 212, 217 ▶ 성체: 156 ▶ 파견: 400

① 2월 15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2월 15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2월 봉성체 안내
2월 봉성체는 2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2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목공지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2월 15일~21일)

⑤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⑥ 매월 넷째 주 2월 22일(일) '한끼 나눔'

⑦ 2월 14/15일 구정 합동 위령미사 30분전 연도 (새벽미사: 미사 후)

⑧ 2월 3일(화)~6일(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 2월 1일(일): 하느님 사랑
- 2월 8일(일): 가족 사랑 / 생명 사랑
- 시간: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교리실

③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④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2월 8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⑤ 솔렉 구역 모임

일시: 2월 10일(화) 3시30분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故 노태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 연도: 2월 8일(일) 교중 미사 후
- 장례미사: 2월 11일(수) 오전 10:30 (연도: 오전 9:30)
- 하관식: 2월 11일(수) 오후 3시 Valley of the Temple

■ 故 김영선 요한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12월 23일 2025년 향년 8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 장례미사: 2월 13일(금) 오전 10:30 (연도: 오전 9:30)
- 하관식: 2월 13일(금) 오후 1시 Hawaiian Memorial Park

※ 과달루페 성지순례 우주관광 담당자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2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성당 옆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안내 (예식: 2월 1일 교중미사 중)

2월 2일(월)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제대초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미사예물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개인 Tax Return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31일부터 배부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구정 합동 위령미사 안내

2월 17일 구정을 맞이하여 2월 14/15일 합동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미사예물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각 미사예물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2월 13일(금)까지 접수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을 앞두고 성지가지를 2월 14일(토)까지 회수합니다.

※ 2026년 견진성사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6년 2월 22일까지
견진성사 일시: 2026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

※ 제대초 봉헌 감사합니다.

김용경 켄마, 김보옥 데레사, 채종석 바오로, 박에릭 즈카리아, 김국희
다니엘라, 강금자 카타리나, 이영미 세실리아

기타공지

※ 미사: 시작 예식(8) : 본기도에 대해서(1)

미사의 시작 예식

입당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

여덟 번째, 본기도입니다. 대영광송이 끝나면 사제는 본기도로 들어 갑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본기도의 전례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9. 대영광송이 끝나면 사제는 손을 모으고 말한다.

✦ 기도합시다.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고 본기도를 바친다.

기도가 끝나면 교우들은 환호한다.

◎ 아멘.

본기도는 미사 중 공동체의 대표인 사제가 공동체와 함께 바치는 미사의 첫 번째 기도이며, 당일 미사의 성격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당일 미사가 지향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본기도의 기도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며 기도한다.”라고 인도합니다. 이는 거룩한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본기도”라는 단어는 라틴어 “Colletta”를 번역한 것으로써 “모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곧,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시간이 바로 본기도 시간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기도에서의 침묵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침묵 이후, 사제가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는 마음을 모아 사제가 바치는 기도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바치는 기도는 사제의 개인기도가 아닌, 하느님 백성의 기도이자, 주님께 올리는 공적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본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잠시 침묵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는데,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 기도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사제는 서서 팔을 벌리고 하느님을 향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본기도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이며,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장엄한 맺음으로 봉헌됩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삼위일체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기도문에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가 봉헌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작 예식을 마무리하며 봉헌되는 본기도는 하나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만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향은 우리에게 성사적 은총으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알아드립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연중 4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성공, 비교, 불안—에 매여 살고, 그 안에서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그 삶의 태도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결국 신앙을 계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해 스바니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끝까지 남기시는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짓이나 불의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세상적으로 강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이들을 부르시어,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형식이 되고 하느님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움 없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자주 넘어지지만, 그만큼 더 자주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마음에 자리를 비워 두는 것입니다. 참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행복은 오늘 우리에게 특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불편하지 않게 유지하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참행복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지, 하느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말입니다. 신앙은 강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늘 어느 정도 가난합니다. 그 가난함이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 주고, 그 자리가 바로 은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끝까지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대단한 이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기에 하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헌금

2월 7/8일 Augustine Educational Founda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1월 24/25일: \$8,754 (한끼나눔: \$1,979) | | | |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 총 340명 |
|-------------------|------------------------------------|---------|---------|-------|--------------------|-----------|
| | 주일헌금 | 교무금 | 2차헌금 | 특별헌금 | | |
| | \$3,568 | \$2,970 | \$1,589 | \$627 | | |

| |
|--------------------------------------------------------------|
|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
|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

| |
|--------------------------------------------------------------------------------------|
| 최 니콜 부동산 |
|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

| |
|----------------------------------------------------------------|
| 메디케어 보험 |
|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

| |
|---------------------|
| 광고 문의 |
| 사무실 808-422-1010 |

| |
|------------------------------------------------------------|
| A'ALA Meat & Seafood Inc |
|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

| |
|-----------------------------------------------------------------------|
| 보나 최 부동산 |
|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